

제11차 일·한 참여형 직장안전보건 개선활동훈련 프로그램 워크숍 참관기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
보건관리팀

이태용 지부장

본 원고는 2020년 2월 20일~22일 일본 산업의과대학에서 개최된 '제11차 일·한 참여형 직장안전보건 개선활동훈련(PAOT-OSH) 프로그램 워크숍'에 참가한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31번 환자 확진을 발표한 직후인 2월 20일 오전 11시경, 일·한 참여형 직장안전보건 개선활동훈련(PAOT-OSH) 프로그램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명숙 사무처장 외 7명의 한국 참가자가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그 시점에 일본의 코로나19 환자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워크숍 개최 및 참석 여부에 대한 사전논의가 많았지만, 개최국인 일본 PAOT 운영위원회로부터 워크숍 개최장소인 규슈 지역에서 감염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감염증 대책을 강구하고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안전이나 건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대비를 하고 있으니 꼭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여러 사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참가 신청한 15명에서 7명만 참석하게 되었다. 출발 당일 참석자 모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소 비장한 각오를 했을 것이다.

일본 방문 일차

약 1시간 30분간의 비행 후 일본 후쿠오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일본 측 PAOT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고기(Kazutaka Kogi) 박사와 나가오상, 오쿠무라상, 이다상이 공항에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전날까지 비가 왔다는 후쿠오카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청명한 날씨였다. 성공적인 워크숍이 될 것이라는 고기 박사의 인사와 참여자 간의 짧은 인사 후에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팀이 준비한 버스를 타고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타가와시 석탄역사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석탄역사 박물관은 19세기부터 이 지역에 많았던 탄광들의 석탄 채굴의 역사 자료, 탄광 주택의 재현, 운반에 사용된 장비 등이 전시되어 있다. 마네키으로 당시 채광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장은 덥고, 습하고, 좁은 공간의 지하 탄광에서 일했던 힘들었던 광부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여자도 광부로 남자와 함께 일을 한 것이다. 남자는 주로 채탄 작업을 했고 여

자는 운반 작업을 맡았는데, 이들은 주로 부부나 모자 지간이 많았다. 위험한 작업을 하기 위해선 인간적인 친밀감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층 전실실에 아마모토 사구메라는 일본인 광부가 50여 년간 탄광에서 일하면서 탄광촌의 생활을 세밀하게 묘사한 풍속화를 보면서 광부 생활의 애환을 느낄 수 있었다.

석탄역사 박물관 뒤쪽 언덕에는 ‘한국인 징용희생자 위령비’라고 쓰인 위령탑이 세워져 있었다. 탄광이 활발하게 운영될 때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징용되어 와서 광부로 일을 하다가 이국에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한다. 우리 일행과 일본 측 PAOT 운영위원들은 이곳에서 분향 및 헌화와 묵념을 통해 이들을 잠시나마 영혼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문에 있듯이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화와 분향에 사용한 꽃과 향을 사전에 일본팀에서 준비한 치밀함에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 위령탑 헌화 후 돌아가는 길에 일본인 재해 사망자 위령탑과 중국인 동원 사망자 위령탑도 보여, 즉석에서 이분들에 대한 묵념을 제안하였더니 일본팀들이 매우 좋아하였다. 이런 행동이 한일 간에 정치적인 불목이 높은 현재 양국 국민들의 신뢰에 작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한국인 징용희생자 위령탑 앞에 적힌 비문

박물관 관람과 위령탑 헌화 후에 워크숍이 개최되는 기타큐슈의 숙소로 이동하였다.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일본 PAOT 운영위원회에서 한국과 태국에서 온 참가자를 위해 준비한 저녁식사에 참석하였다. 기타큐슈는 일본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혼슈와 인접한 지역으로 유명관광지로 사람이 도보로 갈 수 있는 터널이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

저녁식사는 일본식 좌식식당에서 개인 소개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안주를 시키면 2시간 안에 100가지 술을 무제한 마실 수 있어 애주가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었다. 하지만 많은 참석자가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워크숍 때문에 절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양한 일본식 안주를 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불러서 마지막에 나온 부드럽고 맛있는 와규를 다 못 먹고 온 것이 아쉽기도 했다. ‘다음에는 미리 서비스되는 안주의 종류를 확인한 후 맛있는 안주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마음먹었다.

일본 방문 2일째

드디어 PAOT 워크숍이 시작되는 날이다. 오전 7시 30분에 숙소를 출발하여, 워크숍이 개최되는 산업의 과대학(UOEH, Universi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에 도착하였다. 이곳에 도착하여 교육 책임을 맡고 있는 하라(Kunio Hara) 교수의 안내로 교육장소로 이동하였다. PAOT-OSH (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 o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프로그램은 ILO가 지원하여 개발한 참여적 접근을 통한 안전보건 개선 활동훈련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한·일 양국 간의 PAOT 퍼실리테이터 육성과 훈련도구(Tool) 개발, 상호사례

경험 교류 등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매년 일본과 공동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이유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를 담당한 의사로서 PAOT를 이해하고, 이를 사업장에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직장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장소에 도착하니 분임조 형태의 4개 그룹으로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조별로 각 나라 참가자들과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고루 구성되었다. 나는 3조에 배정받았다. 간단한 개회식을 마친 후, 오늘 PAOT 액션 체크리스트 실습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내와 PAOT 액션 체크리스트 사용법에 대해 나가오 선생의 설명이 있었다. 사업장 방문은 1시간 정도 차량으로 이동했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PAOT 액션 체크리스트에 있는 각 항목을 참가자들이 번갈아가며 모두 함께 소리 내어 읽었다. 다른 참가자 말에 의하면 이런 활동을 'PAOT 버스세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PAOT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 워크숍에서 사용한 PAOT 액션 체크리스트 구성은 다음과 같다. PAOT 액션 체크리스트는 ILO 지원 하에 업종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일·한 PAOT 워크숍에서 사용한 '일터 환경 개선 액션 체크리스트'는 일터 환경을 안전보건 관점에서 '보관과 운반', '워크스테이션과 기계의 안전', '작업환경(위생시설)', '일하기 쉬운 팀작업과 환경보호'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방침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6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문장으로 기술하고 칼라 삽화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니어도 짧은 시간에 일터 환경을 체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일터 환경을 관찰한 후 참가자가 개선 제안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네'라고 체크하고 의견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보건 개선 제안 활동이 용이하고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었다.

일하기 쉬운 팀 작업과 환경보호

19. 일을 시작할 때 등 단시간을 이용해서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이 개선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아니오 네 → 우선*

비고 _____



24. 자원 재활용을 위한 규칙을 정해서 협조합니다.

이 개선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아니오 네 → 우선*

비고 _____



PAOT 일터 환경 개선 액션 체크리스트 일부 견본

*전체 체크리스트 중 우선 제안사항을 선택해주세요.



작업현장 방문후 작업현장의 좋은 점과 개선점을 토의하고 발표하는 장면



방문한 FEIC구주공장에서 단체사진



■ 그룹작업: PAOT 액션체크리스트 실습

이번에 방문한 사업장은 FEIC구주공장(Furukawa Electric Industrial Cable Co, 전선회사)이었다. 사업장에 도착하여 회의실에 모여 사업장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사업장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작업현장을 순회하였다. PAOT 액션 체크리스트에 있는 4개 영역별로 기술되어 있는 항목들 중 내가 속해있는 3조가 준비하고 발표해야 하는 작업환경(위생시설) 영역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현장순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작업환경이 매우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다는 것이며, 장비 및 물품을 두는 곳을 여러 색깔로 섹터를 표시하여 구분하고,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이었다. 작업현장을 방문 후 사업장 회의실에 모여 각 조별로 현장순회에서 확인한 좋은 점과 개선점을 각 3개씩을 토의하고 발표하였다. 조별 발표시간에 회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부장이 이를 경청하고 개선할 점을 기록하였으며, 우리가 제안하는 조안들에 대해 감사하고, 현장에서 반영하겠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사업장 방문을 마친 후 워크숍 장소에 돌아오니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시간을 할애하여 산업의과대학 학생이신 Toshiaki Higashi 박사를 예방하였다. Higashi 박사는 한중일학술집담회와 관련하여 한국과 오래 전부터 인연이 깊은 분으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다.

산업의학진흥재단에서 발간한 <The Workers' Detective> 책자를 방문한 기념으로 주었는데, 책의 내용은 산업의학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인 Dr. Alice Hamilton에 관한 이야기로 산업의학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산업의과대학 학장 예방

오후 첫 시간은 고기 박사의 '참여형 직장 환경 개선을 쉽게 하는 힌트'를 주제로 한 기초강연이 있었다. 기초 강연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참여형 직장 환경 개선을 쉽게 하는 힌트 강연 내용 요지

- 좋은 사례를 보고, 작은 개선을 생각하고, 소집단으로 제안한다.
- 참여형 개선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점
 - 긍정적인 접근, 다양한 영역의 저비용 개선, 개선 액션틀 사용
- '액션 틀' 활용이 중요한 공동 경험
 - 지역의 좋은 사례 사진, 액션 체크리스트, 개선계획 · 보고용지
- PAOT 퍼실리테이터 역할
 -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역적인 좋은 실천을 목표로 한다
 - 넓은 영역에서 저비용 개선책을 고르게 지원한다.
 - 그룹토의로 좋은 점과 개선점 제안에 의해 긍정적인 문제 해결형 진행방식을 추진한다.
- 참여형 퍼실리테이터 역할에 도움이 되는 3가지 힌트
 - 참여형 개선의 장점을 살리고, 정보전달은 짧게, 게임도 활용하고, 긍정적으로 일하는 집단효과를 지원한다.
 - 참가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바로 실시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시하도록 격려한다.
 - 작은 개선으로 성공을 얻어 보고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후속 지원한다.

참여형 퍼실리테이터 역할에 대한 내용인데, PAOT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유익했던 강의라고 생각했다.

■ 그룹작업2: '중소기업의 참여형 직장개선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책' 조별토의·발표

고기 박사의 기초강연을 듣고 '중소기업의 참여형 직장개선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책 3가지' 주제에 대해 조별로 토의하고 토의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활동이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표현 가능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통의견을 찾으려

고 노력하였다. 조별 발표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와 비슷한 의견도 있었으나 다른 의견들도 있어 분임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 그룹작업3: 훈련도구 작성과 발표 준비

PAOT 기술 세션(Technical Session)에서는 직장 환경 영역을 안전보건 관점에서 '보관과 운반', '워크스테이션과 기계의 안전', '작업환경(위생시설)', '일하기 쉬운 팀 작업과 환경보호'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오전에 방문한 사업장 특성에 맞게 훈련도구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였다.

훈련도구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작업 방법에 대한 설명과 자료들이 조별로 제공되었다. 내가 속한 3조는 작업환경(위생시설) 영역에 대해 훈련도구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였다. 조별 발표시간은 퍼포먼스 5분 이내를 포함해서 20분이고, 퍼포먼스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직장 환경 4개 영역의 기술 세션 주제

기술 세션 주제	방침
보관과 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기 쉽고 꺼내기 쉽게 보관한다. ·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반한다.
워크스테이션과 기계의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할 수 있게 한다. · 표시나 조작반은 알기 쉽게 한다. · 정기점검과 방호장치로 작업안전을 확보한다.
작업환경 (위생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온열, 소음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정비한다. · 휴식, 휴양을 충분히 취할 수 있게 하고 기본적인 위생설비를 정비한다.
일하기 쉬운 팀 작업과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유나 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내면서 팀 작업을 한다. · 환경보호에 배려한 규칙을 정해서 협조한다.



훈련도구 작성과 퍼포먼스 준비 구상하는 조별 활동



방문한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사진을 찾아 교체해 보고, 발표자 순번도 정하고, '주제에 적합한 퍼포먼스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 팀원들과 토의하다 보니 어느덧 일정이 마무리됐다.

저녁에는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환영만찬이 있었다. 전날과 약간 다른 일본음식들이 나왔는데 특히 내가 아내와 후쿠오카에서 꼭 먹고 싶었던 모즈나베(곰창전골)가 나왔다. 너무 맛있고, 건더기를 먹은 후에 넣은 라면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식감으로 나의 중요한 일본 방문 목적 중 하나가 해결 되는 시간이었다.

일본방문 3일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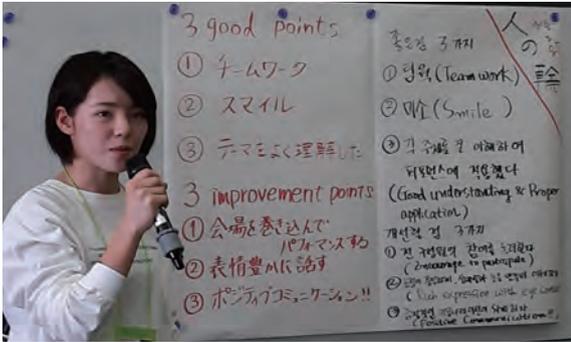
오전 시작은 첫날 진행한 워크숍 내용 되돌아보기를 주제로 오쿠무라상이 그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해 사진과 함께 설명이 있었다. 기술 세션 훈련도구 발표준비를 하고 조별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별 발표시간은 퍼포먼스를 포함하여 20분이었는데, 발표 전 5분간 발표내용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여, 그룹원 간에 단합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룹별로

했던 퍼포먼스가 발표 내용보다 더 재미있고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조별 발표가 끝나고 곳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고기 박사가 심사평을 해주었는데, 시상은 '스마일상, 하모니상, 팀협력상, Best상'이 있었으며 그룹별로 각기 다른 선물도 주셨다.

■ 그룹작업4: 각 조별 발표에 대한 평가

각 조별 준비하여 발표한 기술 세션 훈련도구 발표에 대해 좋은 점 3개와 개선점 3개를 토의하고 발표하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속한 조의 발표에 대해 되돌아보고 다른 조의 발표에 대해 좋은 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는 훈련이 되었다. 조별 발표내용이 첫날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느껴졌다. 첫날 조별 발표내용은 부정적인 표현이 많았는데, 그룹작업4에서는 각 조별 발표에 대해 좋은 점은 많은데 개선점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참가자들이 PAOT의 마력(?)에 점점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점심식사 후 아시아 워크 헬스 포럼 세션으로 일본, 한국, 태국에서 추진한 PAOT 프로그램 적용사례 발표가 있었다. PAOT 사례 발표 후, 한국과 일본에서 제출한 참여형 개선 양호사례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기술 세션 훈련도구 조별 발표에 대한 평가



PAOT 양호사레 사진 콘테스트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에서 수행한 PAOT 프로그램 사진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 그룹작업5: 제11차 일·한 PAOT 워크숍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의

‘제11차 일·한 PAOT 워크숍’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의, 첫날 방문했던 FEIC 공장의 「일터 환경 개선 액션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여 발표했다. 2일 간의 워크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워크숍의 좋은 점은 ‘모든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했다’ 등이었고, 개선점은 ‘워크숍 일정이 너무 빠박하다, 그룹 토의 횟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참석자 간에 친목도모를 할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수료식을 끝으로 워크숍을 폐회하였다. 대부분의 일본팀은 각자의 일상생활을 위해 집으로 돌아갔고, 한국팀, 태국팀, 일부 일본팀은 일본의 유명한 온천지역인 벳부를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였다.

일본방문 4일째

벳부를 방문한 사람들은 오전에 벳부의 유명한 귀신 온천을 관광하고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후쿠오카 공항

으로 이동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나는 이를 더 일본에 머물다가 귀국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PAOT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추후 우리나라에서 PAOT가 활성화되면 PAOT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지적인 효과와 이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부 주제는 이미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여형 프로그램의 목적이 새로운 시도인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근로자들과 사업장 경영자들이 함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전제 조건으로 필요하겠다. 궁극적으로 체계화, 정례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번 PAOT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해준 한국과 일본의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원한다. 🙏